World Cup 明暗

야식·편의점 웃고 영화관·서점 울어

월드컵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광주지역 야식업계와 외식업체 등은 월드컵 특수를 누리고 있다. 반면 영화관·서점·여행업계 등은 고객이 크게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명(明)=한국과 토고전이 열린 지난 13일 밤 광주지역 야식집과 치킨집은 평소 매출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반짝 특수를 누렸다. 길거리 응원이 열린 전남대 후문 인근 편의점과 호프집 등은 경기시간과 경기 이후 밀려드는 손님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전남대 후문 B편의점 관계자는 "이날 하루 맥주와 김밥, 생수 등의 매출이 평소보다 60% 이상 증가했다"면서 "경기 이후에는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였다"고 말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상무·풍암·금호지구 등 야식집과 치킨집도 월드컵 개막 이후 평균 20% 이상 매출이 늘었으며, 한국이 승리로 경기를 마친 뒤엔 배달 폭주가 이뤄졌다. 이외 중계권료 문제로 거리 응원전이 축소되면서 대형 TV를 설치해 놓은 식당·술집·찜질방 등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암(暗)=롯데시네마의 경우 한국과 토고전이 열린 시간대에 6개 관 중 1개 관은 축구 응원전을, 1개 관만 '모노폴리' 영화를 상영했지만, 관객은 고작 2명뿐이었다. 삼복서점과 충장서림의 경우 매출이 각각 30%와 70%가 줄고, 오후엔 고객들의 발길이 완전 끊겨 평소보다 1시간 앞당겨 문을 닫았다.

월드컵 기간 동안 여행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업계도 최근 불황을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휴가시즌에 돌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여행 계획을 월드컵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장애인들은 월드컵 시청 어떻게 했나

소리 변환 '스크린 리더' 통해 열기 체험

청각장애인은 TV 화면만 묵묵히 지켜봐

시·청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13일 밤 태극전사의 경기를 봤을까?

시각장애학교인 광주 세광학교에 다니는 전맹(全盲)학생 54명과 저시력 학생 46명은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프로그램을 통해 월드컵 경기와 만났다. 학생들은 중계방송을 들으며 경기 장면을 상상하고 다음날 인터넷 뉴스를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또다시 들으며 간접적으로 나마 월드컵 열기를 체험했다.

컴퓨터 교사 이병례씨는 "조금이나마 시력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TV 화면 가까이 가서 월드컵 장면을 지켜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TV 화면을 지켜보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스포츠캐스터의 생동감 넘치는 중계를 전달해 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경기 중간에 삽입되는 자막이 경기 시청을 돕는 유일한 수단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텍스트를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 'Eyes 2000'은 음성합성 인터넷 통합 솔루션으로 스크린 리더·웹브라우저 통합 패키지. '소리눈 2000'은 음성의 볼륨·속도·읽기 모드가 있으며, '드림보이스'는 한글·windows 화면을 읽어 준다.

내주 본격 장마

광주·전남 7월 중순까지 최고 376㎜ 비

다음주부터 장마가 시작돼 7월 중순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장마전선은 현재 중국 남부지방에서 상하이(上海) 북부지방을 거쳐 일본 규슈(九州) 남쪽 해상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장마전선은 17일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서히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 장마는 예년에 비해 3~5일 일찍 시작되는 것이다.

◇18일 장마시작=오는 18일부터 광주·전남이 장마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이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남북(南北) 진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장마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이상기후가 나타날 것으로도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장마기간(6월 하순~7월 중순) 중 평균 기온은 18~25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151~376㎜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장마기간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광주 376.32㎜ ▲목포 342.7㎜ ▲여수 385.5㎜ ▲완도 397.68㎜ ▲순천 419.9㎜였다. 지난 30년 동안 장마기간 중 광주의 평균 강수량은 283.6㎜였다.

◇폭우 얼마나 견디나=광주천은 하루 365.8㎜의 집중호우를 버틸 수 있다. 광주시내 중심지인 중앙대교의 홍수위는 43.15m(해발 기준), 현재의 제방 높이는 43.33m(천변 좌안)이다. 광주천은 그러나 57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유천교~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의 도심이 0.1~1.7m 잠긴다.

광주 최초의 사장교(斜張橋)인 극락대교(주탑 높이 36m)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바람까지 견딜 수 있다.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양동 금호생명 빌딩(31층·124m)는 강한 바람에 대비해 좌우 50㎝씩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는 등 이상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마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와 강한 바람에 대비,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지난 10년 장마 기간 강수량 (단위:mm)

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순천
1996	354.7	336.7	349.6	317.4	404.5
1997	443.3	364.5	512.8	404.8	541.0
1998	446.1	417.3	476.9	517.4	445.0
1999	218.9	267.4	427.6	536.3	302.0
2000	377.5	359.4	291.6	464.6	526.0
2001	419.8	348.1	284.2	460.3	480.5
2002	207.0	226.2	442.5	359.4	270.0
2003	643.2	428.2	617.8	566.5	547.4
2004	357.1	400.4	185.5	240.4	376.2
2005	295.6	278.8	267.0	109.7	306.4
평균	376.32	342.7	385.55	397.68	419.9

충장로 우산 행렬

호우주의보 속 37㎜의 기습폭우가 내린 14일 오후 광주 충장로. 이번 비는 15일 오전까지 20~40㎜가 더 내린 뒤 잠시 그쳤다가, 18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 전망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고무줄 구속수사' 없앤다

유형별 기준 첫 마련

대검, 오늘부터 시행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이 대폭 개선돼 범죄 피의자들이 스스로 인신구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돼 온 구속수사 기준을 통합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처음으로 제정해 15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등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불법정치자금 제공 및 변칙적인 재산 이전 등의 범죄는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또 탈세·투기를 노린 무허가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사범도 구속이 원칙이다.

최근 성범죄 사범도 구속수사 대상으로 명문화됐으며,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규정이 예규에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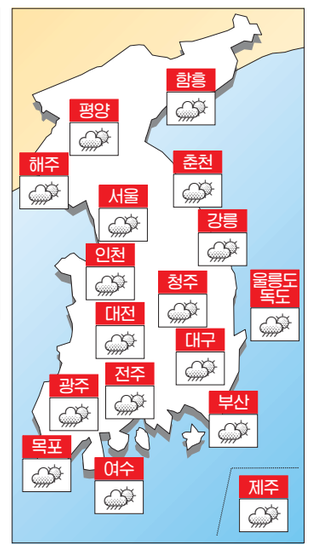
다만 소년범일 경우 심신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풀잎은 빗물 머금고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벗어나 아침에 개겠다.

6월 15일 (음 5월 20일) ◇전국날씨

광 주	비온뒤 갬	18~26℃
목 포	비온뒤 갬	19~25℃
여 수	비온뒤 갬	19~24℃
완 도	비온뒤 갬	19~25℃
구 례	비온뒤 갬	20~28℃
해 남	비온뒤 갬	19~25℃
장 흥	비온뒤 갬	18~26℃
고 흥	비온뒤 갬	18~25℃
순 천	비온뒤 갬	19~27℃
영 광	흐린뒤 갬	19~25℃
진 도	흐린뒤 갬	18~27℃
전 주	비온뒤 갬	18~26℃
남 원	비온뒤 갬	18~26℃
정 읍	비온뒤 갬	18~26℃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3.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04:50 16:44 썰물 10:04 21:59
여수 밀물 11:26 --:-- 썰물 05:35 17:24

▲해뜸 05:17 ▲해짐 19:48 ▲달뜸 23:10 ▲달짐 08: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날 씨						
최저/최고	18/30	18/29	19/25	19/28	19/29	18/30

'교장 초빙·공모제' 광주·전남 4곳 도입

'교장 초빙·공모제'가 2학기에 광주·전남 4개교 등 전국 51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대상 51개 학교를 발표하고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 교로 시범학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삼도초 ▲순천 도사초 ▲해남 우수영중 ▲보성고 등 4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초빙·공모 교장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서 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는 초빙·공모 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종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구속영장 청구대상 범죄

범죄유형	원칙적 영장청구 대상범죄
교통	중상자 등 큰 피해 발생시, 재범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자
폭력	흉기 등 휴대,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 행사
가정폭력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상황 등 고려
절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고려, 상습절도
사기, 횡령, 배임	적극적, 계획적으로 다액을 가로챈 경우, 장부조작 등 신뢰관계 훼손
위증, 무고	위증으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 행사, 증언 대가 받은 경우, 조직적 위증
성폭력	피해자 상황, 피해자 상대 위해 가능성 유의
성매매	청소년, 장애인에게 성매매 하도록 하거나 강요, 알선
지적재산권	피해 금액이 크거나 중대 기업의 영업비밀 취득, 누설
식품, 보건	규모 크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때
환경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오염, 비밀배출구 설치
부동산투기	투기목적 대규모 무허가 거래, 탈세나 투기 위한 대규모 미등기 전매
선거법	선거인 매수 목적으로 금품수수, 악의적 허위 사실 공표, 사생활 비방목적 흑색선전물 배포
불법파업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 주거나 생산시설 파괴시, 조업 참가자에 대한 폭력행사
부당노동행위	악의적 노조활동 방해, 상습 임금체불, 노조와해 목적 개입
불법집회 및 시위	폭력행사 및 도로점거 발생한 불법집회 주동자, 위험한 물건 사용, 배후 조종자
뇌물	뇌물을 요구하거나 거액 뇌물 수수, 뇌물공여로 이익이 큰 공여자
정치자금법	거액 기부자와 수수자, 회계장부 조작
기업비리	회사 손해가 크거나 개인이 착복했을 경우, 범행을 주도했을 경우,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제공시
조직폭력	범죄단체 두목과 핵심간부, 범행 이후 구성원을 도망시킨 경우
마약	원칙적 구속